

전남농협, 맞춤형 도우미사업 호응 높다

상해 농업인, 고령·취약계층 신청 가능 지난해 5054가구 행복·영농도우미 혜택

농촌 고령화로 최근 농업 현장에서 일손을 찾기 힘들어졌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덩달아 인건비도 치솟아 그렇지 않아도 많은 농민이 울상을 짓고 있다. 또 일을 하다 몸을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 막연자실 난만 바라보는 농민도 늘고 있다.

농협이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우미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13일 "지난해 전남농협은 2365가구에

행복나눔이를 파견하였고 영농도우미는 2689농가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도 전남지역본부 행복나눔이 2500가구, 영농도우미 2900가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상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고령·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우미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가 있다.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또는 통

원치료 등으로 농작업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다.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농업인으로 병·의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도우미 수혜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8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는 고령·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

이다.

도우미가 해당 가구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청소, 세탁, 밑반찬 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한 가구당 최대 12일(경로당 2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경 본부장은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우미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신청과 상담은 수혜자 거주지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맞춤형 도우미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농촌 노인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봉사단원(왼쪽), 봉사단원들이 농촌 일손을 돕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맞춤형 도우미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농촌 노인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봉사단원(왼쪽), 봉사단원들이 농촌 일손을 돕고 있다.



농어촌용수관리·농지은행사업 등 4723억 투입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사 순회 업무보고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지난 12일 본부 내근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18개 지사를 순회하며 현장업무보고회와 직원 간담회를 갖는다. (사진)

보고회에서는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이라는 공사 슬로건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사업 운영과 사회적 책임실천에 중점을 맞춘 추진전략을 각 부별로 발표했다. 또 세부실천방안과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토

론 형식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농어촌용수관리사업 1466억 ▲농어업생산기반정비사업 1113억 ▲농지은행사업 943억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759억원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수산기반조성 등에 442억원을 투입해 총 4723억원을 농어업 기반시설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편다.

조성광 본부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본부 직원들의 열정을 모아 중점 추진과제 실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관원 전남지원,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 단속

양파 원산지 미표시 50대 수사

전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양파 5100만원 상당의 양파 32t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뒤 국내산으로 경매하는 방법으로 부정유통 한 혐의다.

지난해 양파 작황 부진으로 중국산 양파의 수입량이 늘고 있다. 국내산 양파는 20kg 들이 한 망에 3만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이보다 훨씬 낮은 2만원가량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 날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60명과 정예명예감사원 3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했다.

전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양파 5100만원 상당의 양파 32t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뒤 국내산으로 경매하는 방법으로 부정유통 한 혐의다.

지난해 양파 작황 부진으로 중국산 양파의 수입량이 늘고 있다. 국내산 양파는 20kg 들이 한 망에 3만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이보다 훨씬 낮은 2만원가량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 날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60명과 정예명예감사원 3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제 유가 '날개없는 추락'... 1990년대 장기 저유가 되풀이?

美 달러 강세·금리·저성장 기조 유사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자 지난 1990년대 장기 저유가 국면의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전반에 퍼진 저성장 기조와 미국 달러화 강세, 원유 수급 상황 등이 1990년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유가는 10~20달러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다가 후반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13일 하이투자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와 더불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달러화와 금리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달러화와 미국 정책 금리 흐름은 여러모로 1990년대와 유사한 점이 많다. 1990년대 달러화는 다른 경기 확장 국면과는 달리 초강세 사이클을 유지했다.

당시 동·서독 통합,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체제 전환, 일본 버블 붕괴, 이머징 위기 등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는 불안한 경기 흐름을 보인 반면 미국은 정보기술(IT) 붐과 금융서비스의 발전으로 호황을 누렸다. 미국의 글로벌 경제 주도권 약화로 당시 달러화는 초강세를 기록했다.

최근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 경제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산업 발전으로 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중국 경기 둔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기 회복 지연, 신흥국의 부채 위험 등을 감안하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경기 회복



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OPEC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1990년대와 유사하다"며 "유가 급락에도 시장점유율 경쟁 등으로 OPEC 원유 생산 감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오히려 OPEC 원유 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5t 미만 소형어선도 무선통신 조업보고

5t 미만 소형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도 원거리 무선통신으로 조업 상황과 어획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조업 후 행정관청 방문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5t 이상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무선통신으로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과 어획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반면, 5t 미만의 조업 후 어업인이 직접 행정 관청을 찾아가 '연근해어업보고서'를 내도통신으로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과 어획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올 화학비료 가격 17% 내린다

농협은 올해 화학비료 가격을 17% 인하여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요소비료는 전년보다 20.9% 내려 2007년 수준인 9100원(20kg/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올해 환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한 상황에서 전국 1900개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화학비료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농협은 이번 가격 인하로 약 1100억원의 농업 경영비가 절감되며 이는 농가당

9만8000원의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요소비료와 복합비료 가격은 각각 일본의 59%, 35% 수준이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는 "농협이 경쟁입찰을 통해 비료를 대량 구매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며 비료 값이 저렴한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영농자재 가격 인하에 박차를 가해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3>신축 상가원룸 매매</h3> <p><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4층) 신축원룸 (코너자리, 아파트 정문, 마트 부근)</p> <p>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p>☆ 보 5,000만 - 월 500만 ☆</p> <p>매가 6억 8천만 (용 1억2천)</p>	<h3>7층 상가건물 매매</h3> <p><복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만, 용 6억)</p> <p>매가 15억5천</p> <p>① 복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1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7천</p> <p>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p> <p>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h3>법률 경매</h3> <p>(주)대신경매</p> <p>(특수물건 추천)</p> <p>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룠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p> <p>2. 동구 수기동 (토 130평, 건 320평) (1층, 생활시설,창고-2층~3층,소매점-4층~5층,사무실)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만</p> <p>3. 전남 순천시 황전면 (토 05평, 건 221평) (1층,음식점 - 2층 커피숍 - 3층 사무실 - 지하,보일러실) ※구례구역 부근, 섬진강 부근으로 경치 좋음 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1억5천</p> <p>4. 동구 학동 (토 114평, 건 60평) ※학운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 약 2미터 도로 접으로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2억6천</p> <p>☆ 경매 투자 ☆</p> <p>→ 공동투자 가능, 단독 투자 가능, 후순위 설정, 연이자 15%</p>	<h3>수익성 상가 (근린주택,주택)</h3> <p>① 복구 신안동 (토 53평,건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억6천</p> <p>② 서구 금호동 (토63평,건370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3천</p> <p>③ 광산구 서봉동 (토202평,건84평) (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p> <p>④ 남구 월산동 (토 34평,건43평)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4백</p> <h3>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h3> <p>① 서구 광천동 (토 54평, 건 155평)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p> <p>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 건 161평)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2억3천</p> <p>③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6천</p> <p>④ 서구 양동 (토174평, 건 424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p> <h3>아파트 추천</h3> <p>복구 신안동 (침당지구) (토18평,건25평) 총 15층 중 7층 감정가 3억5백만 → 최저가 2억1천3백만</p> <h3>토지 추천</h3> <p>복구 장동동 (토지) 291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p>	<h3>8층 상가건물 경매</h3> <p>복구 오룡동 (상성전자 정문 앞)</p> <p>☆ 감정가 35억 (대출 30억)</p> <p>☆ 분할 등기시 향후 60억 가치</p> <p>☆ 2016년 1월 12일 경매일</p> <p>1층 (상가 130평) 2층~7층 (고급 오피 56개) 8층 (주택겸 사무실 41평)</p> <p>경매 교육</p> <p>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 창출 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p> <p>(경매 입찰 매매, 임대 개발 기획까지)</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010-6670-9800 (062)-511-7800		010-6834-4800 (062)-527-7600		